

개인대출 - 소회대출

[가계빚 급증] 빚투·영끌 폭증 가계빚 1700兆 사상 최고 03



Economy

코스피	3070.09 (-9.66)	코스닥	936.60 (-17.69)
금리 (2년물)	1.020 (0.000)	환율 (100원)	1110.60 (+0.20) (23일)

구글-애플의 앱갑질 ‘역차별 철폐’ 칼 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 앱마켓의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 심사에 나선 가운데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은 앱 심사 지연 등 앱 마켓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IT업계에선 정부가 나서 구글의 ‘갑질’로부터 생태계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으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당했다는 조사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앱 등록거부·심사지연 등 구글 갑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 등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았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는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앱 개발사 10곳 중 4곳 구글 등 앱마켓서 갑질 경험 등록 심사지연에 앱 삭제까지

국회 독점지위 사업자 강제 근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했다고 지목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윈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뤄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17.9%, 애플 앱스토어는 8.7%에 달했다.

조승래 의원은 “과거정통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드러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나타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정책 변경도 국내 정보기술(IT)업계의 고민 중 하나다.

구글은 지난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비게임 앱들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앱 사업자, 정부 등 강



유투이미지

한 반발에 부딪친 구글은 정책 변경 시점을 올해 1월에서 10월로 시행 시기를 늦췄다.

IT업계의 고민도 깊다.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30.8%)에서 최대 1568억원(5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인터넷업계 17개 단체는 지난 18일 낸 공동입장문에서 “국회 과방위가 앱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로 인한 문제점과 이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피해는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이제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발표에 참여한 단체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한국대중문화작가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앱마켓 갑질 막을까

이에 맞서 여야 의원들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올라와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홍정민·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조명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일명 ‘앱마켓 갑질 금지법’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당초 국감기간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간사가 합의를 마쳤지만, 국감 마지막 날 야당이 “졸속 처리는 안 된다”며 입장을 바꿨다.

업계 관계자는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투기적 자산” 엘런 경고에 비트코인 급락

5.7만달러대서 4.9만달러로 하락
美 당국 ‘가상화폐 규제’ 시사 영향
엘런 장관도 부정적 입장 재차 밝힘



이번 하락의 원인은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규제를 시사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간밤에 10%가량 급락하면서 5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재닛 엘런 미국 재무장관(사진) 급등한 비트코인에 대해 “투기적이며 비효율적인 수단”이라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급락한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접속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거래소 접속 오류 현상이 다시 한번 발생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시장 중계사이트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만 하더라도 개당 5만7000달러대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가격이 같은날 오후 11시부터 급락해 한때 4만8967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소폭 반등했지만 재하락하면서 이날 오후 2시15분 기준 5만달러 아래인 4만9209달러(약 5461만원)에 거래 중이다.

22일(현지시각) 엘런 장관(은 뉴욕타임스 주최 딜북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이 거래 매커니즘으로 널리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그는 “비트코인은 거래를 수행하기에는 극도로 비효율적인 수단으로, 그 거래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며 극도로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입장이 발표되자 비트코인 가격은 10%가량 급락했다. 또 시세가 급락하면서 거래소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렸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가상화폐 거래소 서버에 오류가 생겨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빗썸은 지난 22일 오후 11시경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약 한시간 반 뒤인 23일 오전 1시경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서비스 정상화 소식을 전달했다.

서버 불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가상화폐는 24시간 내내 거래가 가능하며, 주식시장의 안전장치인 상·하한가 제도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때 이용자가 몰리게 돼 서버가 불안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울 들어서 빗썸뿐 아니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대부분 업체에서 한 번씩 접속 오류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제기했다. 이 총재는 “(비트코인은) 더 오르겠다 이런 수준 자체가 말하기 어려우며, 단기간 급등했고, 태생적으로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이라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영석 기자 ysl@



박용만 회장과 악수하는 최태원 회장

서울상공회의소는 23일 대한상의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제24대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과 차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추대된 최태원 SK 회장이 ‘서울상공회의소, 서울상의 의원총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정의선의 전기차 야심작 ‘아이오닉 5’ 공개

유튜브 통해 세계 최초 공개 행사
대용량 배터리, 공간활용성 극대화

“겉모습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현대자동차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인 ‘아이오닉 5’가 마침내 공개됐다.

현대차는 23일 온라인을 통해 ‘아이오닉 5 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이오닉 5의 주요 디자인 및 상품성을 보여주는 론칭 영상이 현대 월드 와이드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됐다.

이날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전기차 기본에 충실하며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며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이동수단은 물론 필요시 외부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3월부터 울산공장에서 양산



현대차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모델인 ‘아이오닉 5’.

에 들어가며 고객 인도는 한국과 유럽, 하반기에 미국 등에 판매할 것”이라며 “올해 글로벌 기준 7만대 물량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0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에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최초로 적용하고 고객들이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차량의 인테리어 부품과 하드웨어 기기,

상품 콘텐츠 등을 구성할 수 있는 고객 경험 전략 ‘스타일 셋 프리(Style Set Free)’를 반영해 전용 전기차만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를 통해 전용 전기차만의 새로운 디자인과 전기차 시대에 자동차를 경험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제시한다. 아이오닉 5의 외부는 포니로 시작된 현대차의 디자인 유산을 재조명,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는 시간을 초월한 디자인을 구현했다.

이는 1974년 처음 공개된 포니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시작을 알리는 아이콘이었던 것처럼 포니가 대변하는 현대차의 도전정신을 디자인에 담은 아이오닉5도 첫 전용 전기차로서 새로운 전기차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